

KIA 김석환 “홈런 치려면 먼저 안타부터 쳐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KIA 타이거즈 김석환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김석환은 KIA가 기대하는 ‘차세대 거포’이다. 남

다른 파워로 지난 시즌에 기대를 모으면서 개막전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초반 시작이 좋지 않아 1·2군을 오가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김석환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질풍코리아 소속으로 호주리그에서 경험을 쌓았다. 임파선염으로 리그를 완주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했지만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는 등 타격에서 자신감을 얻고 돌아왔다.

스프링캠프에서도 김석환은 한층 세밀해진 타격으로 야수진 경쟁을 이끌고 있다. 1루와 외야를 오가면서 내·외야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내·외야를 모두 준비하느라 고단하지만 김석환은 “캠프에서 두 번은 1루에서 연습하고, 한 번은 외야에서 훈련을 했다. 더블 포지션을 소화하려면 확실히 남들보다 두 배는 연습해야 한다. 하지만 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두 포지션을 연습하는 것도 좋다”고 언급했다.

학창시절 외야를 났던 만큼 익숙하지 않은 내야

1루·외야 오가며 포지션 경쟁

파워 신는 타격위해 노력

“올 시즌 성장한 모습 보이겠다”

가 더 어렵고, 신경을 부분도 많다.

김석환은 “외야는 타구가 빠르게 와도 내야를 거쳐서 오니까 대처할 시간이 있는데, 내야는 강습 타구가 많고 바운드도 불규칙해 반응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바운드를 읽어내야 하는 등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수비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 김석환의 최고 장점은 타격이다. 호주리그는 물론 캠프에서 훈련할 때도 김석환은 ‘타격’에 집중했다.

김석환은 “타격에서 테이크백 할 때 중심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제 타이밍에 스윙이 나가야 하는데 몸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몸이 더 빨라지고 급한 게 있었다”며 “테이크백에서 뒷다리도 같이 움직였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타격 준비가 더 길어졌다. 영상을 보면서 보완하려고 신경을 썼다. 이범호 코치님을 비롯해 주변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번에 확실히 정립하고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타격에서 중심을 잡고 온전한 파워를 실기 위해 김석환은 ‘노력’을 언급했다.

그는 “타격 보안을 염두에 두고 질풍코리아에서도 매커니즘을 꾸준히 가져가려고 했다. 시합할 때 폼 생각 안하고 연습한 대로 하려고 애썼다. 타석에 들어가면 싸워야 하니까 연습을 많이 했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완벽히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타를 의식하기 보다는 정확한 타격을 생각하면서, 매순간 집중하면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김석환은 “이범호 코치님이 출발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런 보다 안타부터 쳐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처음에 안타가 없으니 혼자 급해져서 실패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안타부터 치려 한다”며 “멀리 쳐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좋은 루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스텝처럼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익히려 한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타부터 착실하게 치겠다고 이야기한 김석환은 지난 3일 롯데와의 연습경기에서 비거리 140m짜리 대형 홈런포를 날리기도 했다.

김석환은 “작년 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이겠다. 준비해 놓고 싸우려 한다”고 2023시즌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김석환이 지난 4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날린 뒤 홈에서 황대인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6일 오사카돔에서 열린 WBC 한국 대표팀과 일본 오릭스와의 연습경기에서 한국의 에드먼이 5회초 타석에서 스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한의 유격수 3실책...이강철호 플랜B ‘위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을 눈앞에 둔 한국 야구대표팀이 첫 번째 공식 연습경기에서 과제를 확인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6일 일본 오사카시 교세라돔에서 열린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연습경기에서 2-4로 졌다.

이날 한국은 정상 컨디션을 찾지 못한 주전 3루수 최정(SSG 랜더스)이 선발 명단에서 빠진 대신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3루수로 출전했다.

WBC에서 김하성과 키스톤 콤비를 이룰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원래 포지션인 2루를 지켰다.

이강철 감독은 최정의 컨디션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자 5일 공식 훈련을 마친 뒤 “오지환이 유격수로 나서고, 김하성이 3루수로 출전한다”는 ‘플랜B’를 공개했다.

현역 메이저리거인 김하성(유격수)과 에드먼(2루수)이 키스톤 콤비를 이루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난 시즌 KBO 리그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오지환이 유격수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오지환 연달아 실책에 고개 숙여

대표팀, 오릭스와 연습경기 2-4

김하성-에드먼 키스톤 콤비 ‘합격’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지환이 유격수로 출전한 오릭스전은 플랜B의 한계를 확인했다.

KBO리그에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오지환은 연달아 실책을 저지르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 선발 소형준은 0-1로 끌려가던 2회말 1사 2루에서 이케다 료마를 상대로 유격수 쪽 땅볼을 유도했다.

유격수 오지환은 2루 베이스 쪽으로 느리게 굴러가던 타구 처리 방법을 놓고 뒤로 물러나자, 앞으로 달려와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공을 더듬고 말았다.

계속된 1사 1, 3루에서 소형준은 ‘땅꾼’이라는 별명답게 아마야시 다쓰야로부터 다시 내야 땅볼을 유도했다.

이번에도 오지환은 병살 플레이를 시도하려다 글러브에서 타구를 제대로 빼지 못해 모든 주자들

살려줬다. 대신 오지환은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좌익수 쪽 2루타를 터트려 수비에서의 아쉬운 모습을 만회했다.

한국은 6회말 시작과 동시에 오지환을 빼고 9번 타자 자리에 3루수 최정을 투입했다.

그리고 김하성이 3루에서 원래 포지션인 유격수로 돌아오면서, 대표팀은 처음으로 김하성-에드먼 키스톤 콤비를 실전 경기에서 가동했다.

공교롭게도 유격수로 옮긴 김하성도 6회 실책을 범했지만, 주전과 백업의 실책은 의미가 다르다.

교체로 경기에 들어간 최정은 수비에서 민첩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8회 첫 타석에서 파울 홈런을 치는 등 순조롭게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최정이 컨디션을 회복해 본 대회에 선발 3루수로 출전하고, 오지환은 벤치에서 대기하는 것이다.

만약 최정의 회복세가 더디면 김하성을 3루에 고정하고, 김하성(키움 히어로즈)이 유격수로 나서려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한국 벤치는 8회말 시작과 동시에 김하성을 유격수로 투입해 또 다른 조합을 시험했다. /연합뉴스

골골골골골골골...리버풀, 7-0 맨유 대파

128년 역대 맞대결 최다 골 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 7골 차 대승을 거두며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리버풀은 6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2-2023 EPL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무함마드 살라의 2골 2도움과 다윈 누녜스, 코디 고퍼의 멀티골 등을 쥘어 맨유를 7-0으로 완파했다.

7-0은 리버풀이 맨유와 맞대결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 골 차 승리다.

두 팀 모두 2부리그에 속해 있던 1895년 리버풀이 맨유에 두 차례 7-1로 승리한 적이 있는데, 이를 128년 만에 넘어섰다.

완승으로 2연승을 달린 리버풀은 리그 5경기 연속 무패(4승 1무)와 함께 5위(승점 42)로 올라섰다. 4위 토트넘(승점 45)과는 승점 3점 차가 됐다.

반면 맨유는 구단 역대 최다 골 차 패배 타이틀 수모를 당하며 공식전 11경기 무패(9승 2무)를 마감했다. 리그에선 3위(승점 49)를 지켰다.

전반 막바지까지 이어진 0의 균형을 전반 43분에 깨졌다.

앤드루 로버트슨이 중원에서 왼쪽 측면의 학포를 향해 패스를 찰라쳤고,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학포는 간결한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망을 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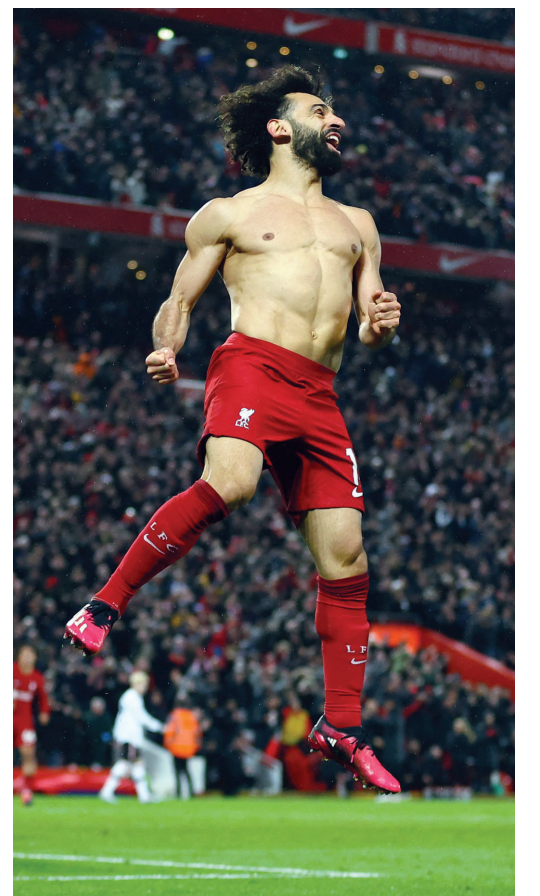
리드를 잡은 리버풀은 후반에 6골을 몰아치며 ‘잔치’를 벌였다.

후반 2분 만에 하비 엘리엇의 크로스를 누녜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해 추가 골을 넣었고, 3분 뒤엔 학포가 살라흐의 패스를 받아 멀티골을 완성했다.

이어 후반 21분엔 리버풀의 역습 과정에서 살라흐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미 4-0으로 틈을 벌린 리버풀은 후반 30분 누녜스, 후반 38분 살라가 한 골씩을 추가하면서 상대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후반 43분에는 살라의 도움을 받은 호베르투 피



살라(리버풀)가 6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EPL 26라운드 맨유전에서 6번째 골을 넣고 상의를 벗어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르니가 팀의 7번째 골로 승리를 자축했다.

이날 두 골을 넣은 살라는 리버풀 소속 선수로 EPL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하게 됐다.

2017년 AS로마(이탈리아)를 떠나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살라는 정규리그 205경기를 치르며 통산 129골을 넣어 로비 파울러(128골)가 보유하고 있던 기록을 새로 썼다.

두 번째 골을 넣은 살라흐는 유니폼 상의 탈의 세리머니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도 기쁨을 만끽했다. 그는 경기 뒤 “내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루다. 이 구단을 올 때부터 껴고 싶었던 기록을 세웠다”며 미소를 지었다. /연합뉴스

신인 에차바리아 PGA 푸에르토리코오픈 우승

신인 니코 에차바리아(콜롬비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푸에르토리코오픈(총상금 380만 달러)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에차바리아는 6일(한국시간) 푸에르토리코 리오그란데의 그랜드 리저브 골프클럽(파72-7506 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올린 에차바리아는 2위 악샤이 바티아(미국)를 두 타 차로 따돌리고 자신의 첫 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에차바리아는 우승 상금과 함께 오는 10일 개막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5월 PGA 챔피언십 출전권을 손에 얻었다. 또 2년간의 PGA 투어 출전 자격도 확보했다.

3라운드를 단독 선두(17언더파 199타로)로 마

감했던 그는 이날 전반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적어낸 뒤 후반에 버디 3개를 몰아쳤다.

에차바리아는 세바스티안 무뇨스, 키밀로 비에가스에 이어 PGA 투어에서 우승한 세 번째 콜롬비아인이다.

전날까지 단독 2위였던 카슨 영(미국)은 1언더파 71타를 쳐 최종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해 네이트 래슬리(미국)와 공동 3위가 됐다.

푸에르토리코 오픈은 같은 기간에 열린 ‘특급 대회’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얼(총상금 2000만 달러)에 출전하지 못하는 하위권 선수들을 배려한 대회다. 상위권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다.

한국인 선수 중에서는 노승열(32)이 공동 29위, 강성훈(36)이 공동 69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